세상의 중심이 될 각오

(사무엘하 17:1~29)

1.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죽이고
3.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4.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5.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6.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7.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8. 또 후새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9.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앎이니이다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이 될 각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될 각오!'

세상의 중심이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좀 더 말을 풀어보면 십자가 복음을 믿으며 생활화하기를 원하면 세상의 중심이 될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말이 좋아 보이기에 각오가 아닌 은혜로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든 사람치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바라거나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나는 세상의 중심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 마음의 씀씀이, 됨됨이, 능력을

봐서도 나는 절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관계 맺는 영역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아는데,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생활화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거북스럽지만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조선 후기 영-정조(1731~1783년) 시대의 실학자이자 과학사상가인 홍대용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라는 상식으로 살았던 시대였는데, 천체관측기구인 혼천의를 만들어서 달을 관측하여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달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지구의 둥근 그림자를 보게 되었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양에서 최초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는 지전설(地轉說)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분이 또한 대단한 이유는 과학지식을 찾아낸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삶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저서인 의산문답을 보면 갈릴레오만큼이나 혁명적인 말을 했는데 당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중국에는 대대로 온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중화사상이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대용은 지구가 둥글고 자전하는 과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이러한 중화사상을 반박합니다. “지구는 둥글고 돌고 있기 때문에 청나라만이 세상의 중심일 수는 없으며 누구나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대단한 분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또한 공자의 이야기를 빗대어 “만약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 안과 밖의 구별이 있을까? 저마다 자신의 것을 소중하고 편하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중국이 오랑캐로 부르는 민족이나 똑같다. 공자는 중국 사람이기에 중국은 안으로 정하고 다른 나라를 밖으로 정한 것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연장하여 생각해보면 “조선은 조선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안으로 생각하고 중국을 밖으로 생각하면 그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중심이 있지만 철없는 아이들이나 괴팍한 독재자의 머릿속에서처럼 주관적 차원의 자기중심적 의식의 사고에서 나오는 중심은 아닙니다. 또한 홍대용 선비가 말하는 자존감이 넘치는 자주적인 자기중심성을 말하는 것도 아닌데 모두 주관적인 중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세상의 중심이 있는데 이 중심이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고, 다른 지점과는 다르게 그 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가 그 지점을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 들어오는 지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있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드디어 페이스북에 가입을 했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몇 십

년 지나도록 연락도 한 번 안 됐던 친구들이 어떻게 다 관계의 그물망에 연결이 되는지 페이스북 정말 대단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나의 세상이라고 볼 때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온 세계의 중심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관계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져있는 판도 위에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 압살롬이 모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라고 하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이 훔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와 왕궁과 후궁들과 신하들까지도 도둑질했으므로 명실 공히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치 경제 등 제 분야의 중심지입니다. 수도를 빼앗았고 왕권을 빼앗았고 그 상징적 행동으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신하들 중에 최고의 모사꾼인 아히도벨이 옆에 붙었고, 다윗의 모사였던 후새까지도 표면적으로는 압살롬에게 속한 것으로 비쳐집니다.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를 차지한 것입니다. 반면에 왕이었던 다윗은 압살롬에게 모든 것을 도적질 당하고 피난길에 있고, 완전히 나라와 민심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압살롬이 수도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왕궁을 차지하고 정치적 제도적으로 나라의 중심에 서서 중심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가 원하는 통치의 방향대로 나라의 상황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은 중심지를 차지했고 중심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변방으로 밀려나 있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피난길에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왕궁이 아닌 동굴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다윗이 가고 거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다윗 또한 실제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심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반역자가 일단 수도와 왕궁을 차지하고 신하들을 포섭하고 군대를 장악하는 시점에서 쿠데타는 성공한 것이고 중심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선민의 역사에서는 모든 것을 차지하여 상황적으로는 압살롬이 중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대한 통치력이 여전히 피난중인 다윗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신앙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이고 은혜의 보따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중심적인 의식으로 충만했다거나 홍대용 선비 같은 자존감 넘치는 자주적 자기중심성의 기백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자아의식은 이방인으로 군대장관이 되었던 잇대에게 한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삼하15: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라고 합니다. 자신을 정처 없는 떠돌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잇대야 네가 지금 정처 없는 나를 따라서 갈 필요가 뭐냐? 나

라의 중심이 된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라'고 나무랐던 것이고 다윗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압살롬이 중심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중심점에 있었는데 다윗이 중심점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앞으로의 계략을 묻자 '만 이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면 민족끼리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다윗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당신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계략이 압살롬에게 합당하고 유리하고 올바른 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편이었던 후새가 다른 계략을 제안합니다. '다윗에게는 백전노장의 병사들이 있고 다윗 또한 전쟁에 능한 용병술의 대가이기 때문에, 만 이천 명으로 그들과 싸웠다가 패배한다면 안 좋은 여론이 생길 것이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별로 전군을 소집하여 다윗과 맞서서 싸우자'고 했던 것인데, 후새는 피난중인 다윗이 정비할 시간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다면 다윗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후새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삼하17:14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이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나쁜 놈 압살롬아 너는 이제 후새가 제안한 계략을 선택하여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명령하셨음이더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력이 임하여 그 마음 자체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에 대해서는 아무 존재가 아닌 것처럼 이름이 잠깐 나옵니다. 피난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느라고 이름이 두 번 비쳐진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압살롬으로부터 주변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히도벨과 후새가 나오고, 후새가 다윗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얘기를 하고 이들은 두 아들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계집종이 전합니다.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윗에게로 가는 것을 압살롬 편에 있던 청년이 알고 보고를 하자, 압살롬 편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두 제사장의 아들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바후림의 여인이 숨겨줘서 이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쳐부수었던 적국의 암몬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다윗을 맞이하여 먹을 것을 주고 사울 집안과 연관이 있었던 마길이 맞이하고 또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 살고 있는 바르실래가 나와서 다윗을 맞아 주는데 등장인물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름만 열거되는 게 아니라 다 역할이 있었는데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압살롬을 위하고 다윗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 서있던 다윗은 손 하나 쓰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수습할 대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관계자들의 마음을

명령하시므로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암몬은 다윗에 의해 바로 직전에 멸망당하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다윗이 세웠을 것임)가 다윗을 대적하지 않고 맞이합니다. 아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적국의 왕의 마중을 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도망 중에 하나님을 붙잡는 한 가지 일에 전념했습니다. 시므이가 와서 저주를 할 때에도 다윗은 삼하16:10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고 받아들입니다. 보잘 것 없는 시므이의 행동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죗값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께 마음을 전념합니다. 다윗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누리며 사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의 지분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모반을 통하여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서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완전히 갖게 하시려고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씻기십니다. 다윗에게 죗값을 물게 하신 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도 하나님을 가지려고 했기에 아무런 사태수습도 하지 못하고 정처 없는 떠돌이로서의 자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나라의 중심점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을 보여드린 결과로 다윗의 육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이 임하는 중심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중심점이 되려는 마음이 없었고 중심점이라는 의식도 없었고 자존감 넘치는 외침도 없었지만, 떠돌이 생활 중에 마음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선민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시는 이 땅의 하나님 통치의 중심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환경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중심점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방으로 밀려나며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삶으로 바꾸는 사건이고 나의 죗값을 주님께서 치르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다윗이 모든 것을 압살롬에게 빼앗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죗값을 치르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죗값으로 인해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뒷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갖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갖게 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급박한 비상사태가 펼쳐져도 마음을 하나

님께 드리고 하나님 갖는 일에 전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통치의 중심점으로 삼으시고, 관계자들의 모든 마음에 명령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며 내가 서있는 지점에서 주변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러한 나라에서 살기 위하여 정말 부담스럽습니다마는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 될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은 주님을 따라 온전히 아버지께 드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중심점이 되어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